

構造主義와 構造主義 批評

李 起 旭*

목 차

- | | |
|-----------------|---------------|
| I. 서 론 | V. 인류학적 적용 |
| II. 구조주의 태두의 배경 | VI. 문학의 구조 분석 |
| III. 구조의 개념 | VII. 결 론 |
| IV. 언어학적 접근 | |

I. 서 론

구조주의는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1960년대에 전성기를 이룸으로써 학문의 제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게 하였다. 서구의 제 국가에서 사회적 변천과 더불어 급격히 태두한 하나의 새로운 사조로서의 구조주의는 그 후 언어학, 인류학, 문학 비평, 정신분석학, 철학 등 인문과학과 사회 과학의 제반 영역에 주로 적용되어 왔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이한 입장의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도 1968년도에 주로 불문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됨으로써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으나 커다란 반응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주로 문학비평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문학에서의 구조주의 접근 방법을 소개하는 과정에 구조주의의 일반적 특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류학자들 사이에도 구조주의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1981년도에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구조주의의 태두인 Claude Levi-Strauss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구조주의의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구조주의의 물결이 새로 밀어닥친 것처럼 여기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종 외국 서적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사조가 태두되었던 프랑스에서는 이미 한물간 사조가 되고 있다. Kruzweil¹⁾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Levi-Strauss를 위시한 구조주의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던 그 보편적 구조(structure)들이 나타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출현한 지 25년 가량이 지나면서 무질서하게 흩어져 평범한 사실들에 대한 어떤 근원적 정합성을 발견하려고 고안된 구조주의는 과거의 당당한

*) 人文大學

1) Edith Kruzweil, (1980) *The Age of Structur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0.

지위에서 물러서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은 구조주의가 초기의 활발한 시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구조주의의 복합적인 방법론은 계속 고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미 다양한 학문 분야에 깊이 파급되어 있다. 이를테면 Barthes의 문학 비평, Ricoeur의 해석학, Foucault의 권력과 정신 이상에 대한 분석, Derrida의 Grammatology(문자 이론), 끝으로 Lacan의 정신분석학 이론은 모두 초기 구조주의의 거대한 이론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조주의의 흔적은 이미 서구의 지적 전통에 새겨져 있으며 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 관심이 일깨워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구조주의적인 방법론이 이미 언어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방법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주의적 방법론이 단순한 유행적 사조가 아니라 중요한 학문적 연구 방법론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구조주의 이해의 중요성을 새로이 깨닫게 된 이유는 Kruzwei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선구적 구조주의자들은 이미 후퇴해 버렸지만 이들의 실패는 다양한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인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는 구조주의 이후의 다양한 학문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단계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호학의 혁신을 단행한 Julia Kristeva나 그라마톨로지를 기록된 기호의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Derrida, 그리고 Anti-Oedipus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Deleuze와 Guattari도 모두 구조주의에서 배태된 소위 후기 구조주의의 선구자들인 셈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최근 진전되는 새로운 사조인 구조주의의 이해를 목적으로 구조의 개념과 구조주의를 규명하고, 언어학과 인류학 그리고 문학에서 구조주의 방법이 적용되어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이해의 목적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 구조주의 전개는 이미 사실화의 단계를 거쳐 역사적 맥락에 속해 있으므로 그 개념에 대한 정리는 기존 연구된 결과를 인용해야 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특히 도움이 된 저서로는 Glucksmann²⁾(1974)과 Kruzweil(1980)을 들어야겠다.

II. 구조주의 대두의 배경

구조주의가 프랑스에서 발생하였고 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은 이것의 대두가 당시 서구의 사회적 상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구조주의 열풍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프랑스의 사상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우선 戰後 지식인들은 그들이 지닌 레지스탕스적 기질에 어울리게 기존 사회체제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심을 제기하던 마르크스주의에 쉽게 사로잡혔으리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들 지식인 사회에 음양으로 큰 영향력을 지속해 왔다. 실존주의자이거나 구조주의자들은 인간 및 사회의 본성에 대해 크게 다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해도 경제 현상에 대한 정의와 사회 변화에 관한 견해에

2) Miriam Glucksmann, (1974)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London and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그것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제창자들은 자신들을 비 마르크스주의자이거나 반마르크스주의자로 자처한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당시 지성인들 사이의 환멸은 정치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달성한 러시아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에서 그들은 마르크스적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실존주의도 이 사조의 추종자들을 결속시켰던 나치스에 대한 공통된 적대감이 사라지자 허약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실존주의는 너무 주관적이었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 임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실존주의는 소련 공산주의와의 결별에 대한 요구에 의해 야기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더 이상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시즘과 실존주의가 퇴조되는 분위기는 적어도 새로운 사조로서 등장한 구조주의의 길을 밝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Kruzweil³⁾의 지적처럼, “구조주의 출현은 최소한 그 사조의 추종자들에게는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 모두의 한계와 대면함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탈출구를 마련해 줄 것처럼 보였다.” 결국 모든 사회현실이 아직까지 의식되지 못한 공통의 정신 구조들의 상호 작용으로 여겨야 한다는 구조주의 철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에게도 그들이 사로잡혀 있던 정치문제와 이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유럽의 학생운동을 경험한 세대들은 부르조아이데올로기를 비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행동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구조주의는 이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Glucksmann⁴⁾은 세 가지로 그 근거를 들고 있다.

첫째로, 구조주의는 엄밀한 이론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인식론이 사회 구성체의 문화적, 심리적 차원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에 대한 비경험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지식 형성의 필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명백한 과학적 인식론의 전제를 강조하는 구조주의는 경험주의나 학구적인 사고의 불투명한 이론과는 대조를 이루면서, 특히 인류학과 사회학을 비판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념을 제공하였다.

둘째로, 구조주의는 화원론이나 경제결정론이 아니면서도 다른 시대가 아닌 바로 자본주의, 계급주의 체제가 갖는 모순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구조주의는 상부 구조에 대한 비환원론적 이론을 모색하였다.

셋째로, 구조주의자들의 모든 분석은 인습적 정통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구조주의자들의 두드러진 정치적 성격은 이론에 대한 어떤 실천적 연관성, 즉 부르조아 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 분석과 정치적 행동 간의 연결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후 세대들이 다른 대안적인 이론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이처럼 구조주의자들은 사회 분석을 위한 일관성있는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친족과 원시적 사유에 대한 Levi-Strauss의 접근 방식은 진화론이나 기능주의자들의 문제들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Lacan은 사회 혁명보다는 무의식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고,

3) Edith Kruzweil, (1980) *The age of Structur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P. 4.

4) Glucksmann, (1974) 앞의 책, P. 153.

이런 점에 있어서 그의 견해는 혁신적이었다. 그에 있어서의 무의식이란 언어 속에 뿌리박고 있는 해명되어야 할 원전(text)이다. 그의 의미와 음성의 전위라든가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상징주의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을 정신 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Foucault의 강연은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초점은 사회의 제도들, 이념들, 관습들 그리고 세력 관계들 간에 숨겨진 상관 관계들에 집중해 있다. 그의 시도는 변형의 연속적 과정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사회의 지식 약호를 해명하는 데 있었다. 또한 Barthes는 구조주의를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했으며, 그래서 그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에 대한 이론들을 정당화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호학 속에 구조주의 방법론을 채택하려 하였다.

III. 구조의 개념

Glucksmann의 지적⁵⁾에 의하면 구조(structure)라는 단어는 원래 구성한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 *struere*와 그 명사형인 *structura*에서 유래한 것이다. 17세기에 이르러 해부학과 언어학 연구에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그것은 전적으로 건축학상의 용어였다. 17세기 이후 신체 기관의 배열도 일종의 건물로 간주되면서 언어 역시 구조화된 성격을 띤 구어적 어휘의 배열로 이해되었다. 그 용어는 항상 전체(whole)와 전체를 이루는 부분 및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칭하였다. 구조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개념을 품고 있어서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엄밀한 과학에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다. 18세기에는 Vico⁶⁾가 오늘날 구조주의에 근접하는 사상을 퍼냄으로써 적어도 인간 과학에서의 구조의 개념을 최초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은 “제 자신을 창조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인간은 만드는 자(maker)임을 분명히 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상에 맞추어 사회나 제도를 만들어 내며,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또 다시 인간을 형성하게 된다고 전체, 창조의 과정을 되풀이 하는데 이 과정이야말로 구조화의 과정인 것이다. 또한 Vico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의 제도에는 성질상, 인간의 사회 생활에 있을 법한 사물의 실체를 일률적으로 파악해서 그것들이 지니고 있을 다양한 양상에 따라 여러가지로 수정을 가하여 표현하는 모든 국가에 공동되는 심적 언어(mental language)가 있을 것임이 틀림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심적 언어는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구조화의 요구에 따라 인간 자신의 본성을 복종시키는 인류의 보편적 능력으로서 등장한다. 그러므로 Vico에 게는 구조란 “모든 인간의 생활 방식에 성격을 부여하는 원리”가 된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Spencer가 처음으로 생물학에서 사용되던 그 용어를 인간 과학에 옮겨 사용하였다. 비록 Spencer는 사회 유기체와 생물 유기체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가 도입한 사회 구조라는 개념은 자연과학적 색채를 떨 수 밖에 없었다. 사회 구조를 유기체적 구조로 유추시킴으로써 그는 사회과학에 있어서 심각한 방법론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사회유기체나 생물유기체 어느 쪽에서나 모두 구조는 전체를 이루는 관찰 가능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5) Miriam Glucksmann, (1974) 앞의 책, PP. 15~46.

6) Terence Hawkes, (1977) *Structuralism and Semiotics*, London : Methuen & Co. Ltd., PP. 11~15.

의미를 갖는다. Spencer로부터 Durkheim과 Radcliffe-Brown에 이르는 사상 체계를 특징짓는 자연 과학적인 한계성으로 인해 현대 몇몇 사상가들은 구조의 용어의 유산을 Morgan에게서 찾기도 한다. Morgan이야말로 유기체적 유추에 관련됨이 없이 체계(systems)라는 용어로서 자신의 자료를 분석한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구조주의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헤겔의 총체성의 개념, 지각 심리학에서는 형태 이론(Gestalt theory), 고전 문법의 원자론을 거부한 Saussure의 언어학, 마르크스의 사회 분석방법, 그리고 뒤늦게 1930년 이후 의사 소통 이론과 사이버네틱스 이론 등이 사회과학에 고도의 정밀한 분석 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언어학에서는 Saussure 이전에도 구조의 개념은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Ducrot⁷⁾는 구조의 개념이 적어도 Humbolt의 선물로 간주하는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Humbolt는 세계의 언어를 분류하고 이것들을 몇 개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구조주의적 사고에 이르고 있다. Ducrot는 Humbolt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Humbolt의 견해에 대한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언어학자들의 전통적인 사고 방식인 언어는 사고의 거울이다라는 관념을 나누어 갖고 있으며, 둘째, 그가 규칙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사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각도에 입각하여 볼 때 Humbolt의 저술 속에는 20세기 언어학자들이 생각을 예견할 수 있는 많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번째 사항은 두번째 것을 특수화한 것으로서 개개의 언어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이 전적으로 자의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언어 속에 사고 단위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규칙성이 있다는 사실에만 의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언어에 의한 사고의 표현은 단어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 언어 특유의 규칙성은 이 결합의 내부에 표명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현상을 지배하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가정과 체계적인 결합을 가능케 하는 구조의 개념의 암시 등 19세기 초의 언어학에서의 구조 내지 체계의 개념은 오늘날과 거의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Saussure에 이어져 보다 더 체계적인 이론들이 되고 있다.

구조(structure)라는 말이 공식어로 채택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언어학에서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Saussure는 19세기 비교 문법의 통시적 관점을 거부하고 공시적 관점을 강조하였으며, 언어를 체계적인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구조 언어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또한 그는 언어 현상을 고찰하면서 두 개의 기본적 차원인 langue와 parole을 구분하고 둘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구조주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Saussure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언급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그의 구조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그는 그 자신이 구조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언어가 하나의 체계로 구성된 것이어서 언어의 연구는 그 구성 요소들간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과, parole의 다양한 양상을 지배하는 langue의 체계가 있다는 지적은 그 자체가 구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aussure에서 분명하게 암시된 구조라는 용어가 언어학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쓰이게 된 것은

7) Oswald Ducrot, (1968) *Le Structuralism en Linguistique Vol. I*. Paris : Points, PP. 25~31.

1929년 프라그에서 개최된 슬라브 언어학자 회의에서 소위 프라그학파의 언어학자들에 의해서였다.⁸⁾이 회의에서 의명의 선언문이 낭독되었는데 이것을 초안한 Jakobson, Troubetzkoy, Karcevski 등에 의하여 언어 연구에 있어서 구조 파악의 중요성이 일깨워졌다. 구조란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상이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서 어떤 일관된 용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Jean Piaget(1973: 5)는 실체(entities) 안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구조의 개념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지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전체성(Wholeness), 변환(Transformation), 자기조절적 개념(self-regulation)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구조가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가 변환을 허용하면서도 구조 자체를 넘어서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 언어는 그 낱말의 형성을 현실의 패턴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내적인 그리고 자기 충족적인 규칙을 토대로 해서 구성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Gluchsmann의 인식론적 구조의 개념을 검토하고 구조주의적 적용의 사례에서 좀 더 구조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구조는 한 현상의 근본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접합, 그리고 각기 상이한 계 수준간의 상호 작용 및 그 결과를 표현한다. 구조는 일반성의 다양한 정도들, 이를테면 특정한 역사 시기, 무관한 사회들 또는 개별 문화 형식에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발견이 가능하고 객관적 존재치를 갖고 있는 한 분야에는 오직 하나의 구조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Levi-Strauss의 구조는 사회 관계에 대한 관찰된 자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사회 구조인 무의식적이고 은폐된 실재를 가리킨다. Levi-Strauss의 구조적 접근 방법은 관계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며, 사회 구조간에 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일련의 항구적 관계의 속성(properties)이다.⁹⁾그러므로 구조주의란 무엇보다도 구조에 대한 지각과 記述에 연관된, 세계에 대한 하나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¹⁰⁾이 새로운 지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는 결보기와는 반대로 그 구체적 특징이 명료하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각될 수 있고, 그 본성이 적절히 분류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로서 성립되어 있지는 않다는 깨달음이다. 실제로 모든 지각자가 지각하는 방법에는 지각되어지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생태적인 성향(bias)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개의 실체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여기에서 관찰자와 관찰되어지는 것과의 관계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물의 참된 본성은 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성하고 그리고 지각하는 사물들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개념 즉 세계는 사물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오히려 관계에 의해서 성립된다는 개념은 구조주의자의 첫째 원리가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실체이든 경험이든 그것의 완전한 의미는 그것을 부분으로 삼고 있는 구조 안으로 통합되어짐으로써 비로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주의자의 생각의 궁극적 원천은 항구적인 구조, 즉 개개인의 행위, 지각, 자제가 그 안에서 조화되고 그것들의 최종적인 성질이 그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것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항구적인 구조에는 정신 그 자체의 항구적인 구조를 뜻하는데, Levi-

8) 소두영, (1984) 구조주의, 서울 : 민음사, P. 43.

9) Miriam Glucksmann, (1974) 앞의 책, PP. 30~31.

10) Terence Hawkes, (1977) 앞의 책, P.17.

Strauss의 인류학을 정신의 무의식적 작용의 문화적 부산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단정하는 Rossi¹¹⁾의 주장은 구조가 무의식적 논거의 구조임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IV. 언어학적 접근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구조 분석의 기본적 개념들은 20세기 초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의 일반 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eneral)는 학생들의 노트를 정리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1915년 초판이 출간되었다. 그러자 이 책은 현대 언어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저술에서 Saussure는 후에 구조적 사고에 영향을 준 많은 개념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이 책에서 언어 자체를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펴 나갔다. 그의 정의는 언어 활동의 세가지 수준, 즉, langage, langue, parole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langage는 가장 광범위한 언어의 양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화(speech)를 위한 전 인간의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너무 광범위하고 규정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구될 수 없는 것이다. langue는 우리들 각자가 타인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언어 체계(language-system)이다. 우리의 개별적인 말(utterance)을 Saussure는 parole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langage는 언어적 잠재력, langue는 언어 체계 그리고 parole은 개인적인 말(individual utterance)을 지칭한다. Saussure에게 있어서 언어학적 연구의 중심 주제는 언어체계이다. 언어 체계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언어를 말하는데 있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히 많은 잠재적인 말(utterance)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한한 수의 단어와 문법적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나 관계는 단순한 체계의 양상이다. 언어 체계는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언어 혹은 언어의 모델은 개인적인 말(individual utterance)이라는 자료로부터 구성되어야 한다. 그 밖의 구조적 연구를 위한 이러한 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날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인문 분야의 학문은 그것이 인식하는 현상으로부터 현상을 지배하는 체계 즉, parole에서 langue로 옮겨가야 한다. 언어에서는 어떠한 말(utterance)도 그것의 의미를 지배하는 언어 체계를 결여한 화자에게는 이해될 수 없다. langue와 parole의 관계에 대한 비유적인 설명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선명해진다. Hawkes¹²⁾에 의하면 langue는 언어 능력의 사회적 산물인 동시에 개인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단체에 의해 채용되고 있는 필요한 약정의 집합이다. 그리고 parole은 물 위에 나타나 있는 빙산의 일각이며, langue는 그것을 받쳐주는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같이 느끼면서도 결코 그 자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더 큰 빙산 덩어리인 것이다.

언어 체계를 강조할 필요성을 확립한 후에 Saussure는 언어 체계와 그 요소들의 기술을 위한 개

11) Ino Rossi, (1980) *People in Culture*, New York : J. F. Bergim Publishers, Inc., P. 63.

12) Terence Hawkes, (1977) 앞의 책.

념적 장치를 고안해 나갔다. 첫째 그는 언어 구조의 기본적 요소인 기호(sign)를 제정의 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호는 사물에 대한 명칭뿐만 아니라 청각상(sound-image)과 개념(concepts)을 연결하는 복합적인 전체이다. 그리고 청각상(sound-image)은 대화(speech)를 청취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듣는 바와, 언어를 읽고 생각할 때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다고 상상하는 바 모두를 지칭한다. 또한 Saussure는 기호의 두 가지 양상을 능기(signifiant)와 소기(signifie)라고 불렀고, 의미하는 소리와 의미되는 개념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arbitrary)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언어의 자의적 성격으로부터 많은 논란이 따른다. 자의적 성격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기호 내에서 청각상이란 결코 개념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나무(tree)의 개념은 상이한 언어 내의 수많은 아주 다른 청각상에 의해서 의미될 수 있다. 사실상 기호가 자의적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다. 음과 개념 사이의 연관은 문화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질상에서 임의적인 것이다. 가령 영어권 내에서 자란 사람은 우리가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고자 할 경우 '나무'를 'tree'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기호와 기호 체계의 연구는 인간과 사회 체계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Saussure에게는 언어란 생각을 표현하는 기호의 체계(a system of signs)가 된다. 그는 사회 내의 기호의 체계를 연구하는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호학(semiology)이라 불렀다. 기호학은 기호를 구성하는 바와 어떤 법칙이 그들을 지배하는가를 보여준다. 결국 언어학이란 기호학이라는 일반 과학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기호학에서 발견된 법칙은 언어학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호학이란 분명히 구조주의적 사고의 한 양상으로 생겨난 것이다. 언어는 결국 낱말이라는 자료적인 실체(substance)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추상적인 기호의 체계안에 있다는 것이다. 낱말들은 이 체계의 말단의 단계에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기호 및 기호들의 관계가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며 기호 및 기호들 간에서의 관계의 본질도 역시 구조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언어 기호는 그 개념과 청각상 혹은 앞서 언급한 소기(signifie)와 능기(signifiant)라는 두 측면간에 존재하는 관계라는 견지에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나무의 개념(즉, 소기)과 나무라는 낱말의 청각상(즉, 능기) 사이의 구조적 관계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언어 기호를 구성하며 언어는 이들 언어 기호에 의해서 성립된다. 즉, 언어는 관념을 표현하는 기호 체계인 것이다.

Saussure의 가장 일반적이며 영향력 있는 사상은 언어 연구에의 공시적(synchronic) 접근과 통시적(diachronic) 접근 사이의 구분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언어 연구에서 통시성을 무시하고 공시성에 전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언어에서의 어떤 특정한 현상은 두 가지 방법에서 검토될 수 있다. 언어는 그 자체와 동시에 존재하는 전체 체계의 부분 혹은 관련된 현상의 역사적 영역의 부분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단어나 소리의 사용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speaker)에 의해서 동시에 사용 중인 그 밖의 단어들이나 소리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공시적으로 검토될 수 있거나 혹은 같은 단어나 소리를 인식론적이거나 현상학적인 앞선 것들과 계승된 것들과를 관련시켜서 통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시적 언어학에서 우리는 일정한 한 시기에 한 언어의 전체 상태를 검토하는 반면에 통시적 언어학에서는 한 일정 기간에 걸친 언어의 특별한 요소를 검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시적 언어학이 주어진 언어 체계를 전체로서 적절히 다룰 수 있다는 점이 필연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19세기 언어학의 훌륭한 업적이 통시적

연구의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Saussure의 견해는 극단적일 정도로 인습 파괴적이다. 그의 견해는 Saussure의 추종자들(대부분 구조주의자들)로 하여금 Hegel에게 영향을 받은 사상가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거둬진 갈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두 가지 양상을 갖는데 모두 Saussure의 견해에 소급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의 자의성을 주장함으로써 Saussure는 언어에 미치는 언어 외적인 영향력들을 분명히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한 문화의 경제적 양상이 그 밖의 모든 문화 요소의 일차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언어가 자체로 결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개념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역사적인 고려를 미미한 역할로 좌시해 버린 것은 언어의 독자성보다도 더욱 더 모욕적인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물론 유목적적이다. 그래서 역사의 목적을 인간이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시적 연구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Saussure류의 언어학자들에게 각각의 언어는 언어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볼 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적절한 것이다. 언어에는 발전이 없으며 오로지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언어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목적과 배열의 원리는 언어의 역사 속에 있다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어떤 주어진 언어 체계의 기호들 사이의 관계나 대립의 논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아말로 Jakobson이나 Trubetzkoy 그리고 Saussure 이후의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된 것이다.

Saussure 이후의 연구 동향에 대한 Emile Benveniste¹³⁾의 개괄적인 진술은 언어학에서의 구조주의적 견해를 명료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언어가 체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 때의 언어 연구는 구조 분석의 문제가 된다. 각각의 체계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단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들의 내적 배열, 즉, 한 체계의 구조를 결정하는 배열에 의해서 다른 체계와 구분된다. 언어를 구조에 의해 조직되는 체계로서 보는 것이 바로 구조주의적 견해를 따르는 셈이 된다.” Benveniste의 지적과 같이 Saussure의 일반 언어학 이론은 언어를 체계로 파악한 것임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Saussure는 과거의 비교 문법이나 사적 언어학에서와 같이 19세기의 지배적이었던 역사주의적 관점에 머물렀던 언어학 연구를 언어의 자율적 체계를 강조함으로써 언어 체계가 지닌 내재적 법칙을 발견하려는 새로운 연구의 장을 개척해 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연구는 소위 구조적 접근 방법의 효시가 되었다.

V. 인류학적 적용

구조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새로운 사조로 정립되기까지는 Levi-Strauss의 공적이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Saussure가 언어학에서 언어 체계의 내적 법칙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처럼 Levi-Strauss는 인류학에서 문화의 제 차원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심층 구조를 찾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는 문화란 인간의 심층 구조의 표현이며, 문화의 다양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문화 현상을

13) Emile Benveniste, (1971) *Problems in General Linguistics*, Coral Gables : University of Miami. P. 81.

결정짓는, 인간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가 발견될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그가 되풀이해서 자기의 작업을 강조했듯이 친족 구조에서 원시적 분류 체계로 그리고 신화 연구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구는 하나같이 인간의 보편적 정신구조에 대한 탐구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는 “인간 정신의 본질과 역사의 의미 그리고 사회과학에 대한 가설을 제시” 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의 가설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고 구조주의에 대한 급격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 본 장에서는 Saussure에게서 구체적으로 배태된 구조주의의 싹이 Levi-Strauss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며 결실을 맺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그의 저작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가 받은 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선 그의 구조주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끼쳤던 요소들을 알아본 후 구조주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슬픈 열대¹⁴⁾(*Tristes Tropiques*)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다. 여기에서 Levi-Strauss는 자신의 세 스승으로써 지질학과 Freud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마르크시즘을 들면서 이들에게서 받은 영향력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표의 식물군의 다양성을 지배하는 것이 지질 구조임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실체는 분명한 것만이 아님을 지질학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Freud에게서도 지질학에서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일련의 사실들이 임의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Levi-Strauss는 Freud의 무의식의 차원과 유사하게 구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의식의 현상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듯이 사회 현상의 다양성에도 심층적인 어떤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마르크스에게서 받은 영향력은 주로 방법론적 차원에서이다.¹⁵⁾ Marx는 물리학이 감각적 지각에 근거하지 않는 것처럼 과학은 사건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개념적 모델들을 구성하여 이를 실험하려 하였다. Marx와 Levi-Strauss와의 관계 그리고 Marx로부터 Levi-Strauss가 받은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당시의 거의 모든 서구의 지식인들이 초기 마르크스 사상의 인간주의적 측면에 경도되고 있는데 반하여 Levi-Strauss는 그의 후기 저작에 나타난 엄격한 과학적 성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Marx의 후기 저작 속에는 관념론이나 헤겔주의 색채가 거의 없었다. Marx는 사회 구성체의 여러 상부 구조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Levi-Strauss는 자신의 사상이 Marx가 발전시키지 못했던 상부 구조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여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접합점과 분기점을 보여줌으로써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를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Levi-Strauss는 Marx를 통해서 구조를 그 구성 요소들로 환원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¹⁶⁾

둘째로, 그의 인류학 형성에서 받은 외부의 영향력을 주목해 보면 우선 Radcliffe-Brown의 연구에서 Levi-Strauss는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 즉 사회의 골격과 그것의 상호 작용 원리를 발견하려는 의욕을 이어 받을 수 있었다. Radcliffe-Brown의 사회 구조는 분명히 사회의 기능이나 역사로부터 독

14) Levi-Strauss, (1973) *Tristes Tropiques*. Coabnde Penguin Books Ltd.

15) Mirian Glucksmann, (1974) 앞의 책, P. 41.

16) Mirian Glucksmann, (1974) 앞의 책, P. 45.

립시켜 분석될 수 있는 실체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Levi-Strauss의 중요한 관점은 프랑스의 사회학 연보학과파(Annee Sociologique School)의 사회학자들에게서 받은 영향력 하에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학은 사회 비평이나 사회 철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으며, 인류학은 19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회학과 구별할 수 있었다. 사회 연구에 독자적인 연구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Kant의 관념 철학의 기본 개념을 Levi-Strauss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Darkheim을 통해서였다. Darkheim은 프랑스 사회학의 기반을 다지면서 사회학적 연구에서 관찰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찾는 작업을 강조하였다. Mauss¹⁷⁾의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Mauss는 그의 저서 증여론(The Gift)에서 선물의 다양한 형태를 비교하면서 그 형태의 배후에 숨겨진 호혜성이라는 근본 관념을 발견하려 하였다. 개인이 주고 받는 선물 또는 물품은 그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Mauss는 주고 받는 관계를 일종의 교환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선물의 교환은 사회 관계의 모든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내포한 사회적 교환의 일환으로 보고 이것을 총체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교환은 세 가지 의무에 의하여 지배된다. 주어야 할 의무와 받아야 할 의무 그리고 갚아야 할 의무인데 이러한 의무감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호혜성(reciprocity)의 원리에 근간을 이룬다고 하였다. Levi-Strauss는 Mauss의 연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Mauss는 호혜성의 원리가 사물의 내면적인 신비한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Levi-Strauss는 정신적 유대(spiritual bond)를 강조함으로써 Mauss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즉, Levi-Strauss에게는 교환이란 상보적 관계의 체계인데 이것은 권리와 의무의 체계가 되며 인간의 정신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세째로, 언급해야 할 사항은 Levi-Strauss와 언어학과의 관계이다. Levi-Strauss¹⁸⁾는 언어학이 사회과학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사회과학 중에서도 가장 진보한 분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함으로써 사회과학에서의 연구 성과는 보다 훨씬 향상되리라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aussure 언어학은 19세기 원자론적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전체와의 관련을 통해 기능하고 가치를 찾는 부분들의 상호 의존성의 인식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Saussure의 개념은 언어학을 사회학에 보다 더 가깝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절이나 교환 형태와 같은 사회적 관습 역시 기호의 체계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어학과 사회학의 협력은 Durkheim과 Saussure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Saussure가 언어(la-
ngue)와 말(parole)을 구분한 것과 Durkheim이 사회를 개인의 밖에 존재하면서도 강제적인 것으로 보고 개별적인 사회적 행위는 전적으로 사회에의해서 예정된다고 보고 있는 점이 유사하다. 또한 Levi-Strauss는 Saussure의 기호학을 받아들이고 기호학을 자신의 인류학의 영역으로 삼았다. 그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의 인류학도 사물에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의 연구라는 단정하고 있다. “언어는 현실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인식된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곧 분절 체계 속에 사물을 집어넣는 것이며 이는 연쇄적으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구별됨으로써 의미를 부여받는다.”¹⁹⁾ 이와같이 Levi-Strauss의 신화 분석은 Saussure의 기

17) Marcel Mauss, (1954) *The Gift*. London : Cohen and West. 참고

18) Claude Levi-Strauss, (1963) *Structural Anthropology*. Great Britain : Penguin Books Ltd. P. 31.

19) Claude Levi-Strauss, (1963) 앞의 책, P. 32.

호학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언어학에서 받은 구문 분석 방법은 주로 Troubetzkoy의 음운론 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것을 Levi-Strauss는 사회 분석에 응용하고 있다. 첫째, 음운론의 의식적 언어 현상의 연구로부터 그 무의식적 하부 구조의 연구에로 이행한다. 둘째, 그것은 항(item)을 독립된 실체로 다루기를 거절하며, 항과 항의 관계를 분석의 기초로 삼는다. 셋째, 그것은 체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음소 체계를 명시하고 그 구조를 밝히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넷째, 음운론이 일반적 범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언어학의 이론과 성과에 도움을 받고 Levi-Strauss는 역사적이거나 기능적인 설명 방식과 대립되는 공시적 설명 방식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영역에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 그는 항상 도움이 될만한 모든 자료로부터 보편적 특징을 뽑아서 자신의 원래의 관심과 부합되는 방법과 이론을 발견해 나갔다.

Levi-Strauss의 구조 분석의 첫번째 시도는 친족 체계에 관해서 이루어졌다. 친족 체계는 가족의 성격이나 혼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규칙으로서 사회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Levi-Strauss는 친족 관계와 용어가 인간의 동일한 무의식의 구조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기본적인 원리를 밝혀 내려 한다. Mauss의 연구에서 증여행위가 교환 행위의 일종이며, 모든 모형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의 하나로서의 사회적 교환임이 지적 되었듯이 Levi-Strauss는 친족 체계에도 호혜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 하에 이것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의 첫번째 주요 저서인 「친족의 기본 구조」(1949)에서 호혜성과 사회 구조의 원리를 친족과 혼인 체계의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는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규칙인 근친 상간 금제로부터 그 분석을 시작하고 있다. 그는 이 금제를 족외혼과 혼인 교환의 기원으로 보았다. 호혜성과 족외혼의 규칙이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갈망하는 여자의 처분 문제 즉, 교환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토대를 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 여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소유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측의 여자와 교환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호혜성이 선물의 최상의 규칙이 된 이유라고 그는 지적하고 있다. 그는 Troubetzkoy의 방법론을 유추하여 친족 용어를 분석하고 있다.²⁰ 친족 용어들은 음소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요소이며 또한 어떤 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비추어서만 그 의미가 추출되어 진다. 다시 말하면 친족 현상은 별개의 현실계에 속하고 있으나 언어학적 현상과 동일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Levi-Strauss는 모든 친족 체계를 네 가지 용어 즉, 형제, 자매, 父 그리고 子로 구분한다. 자매간의 혈연관계, 부부간의 인척 관계, 양친과 자식간의 출계 관계가 친족의 기본 구조를 구성한다. Levi-Strauss는 다양한 친족 유형의 권위 관계가 父와 子 사이에 혹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또한 다양한 결혼 체계를 집단 간에 사람들이 형성한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설명하였다. 결혼 규칙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제시하는 대신에 Levi-Strauss는 그러한 규칙들이 교환의 원리를 특별히 적용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모두를 통합해 내고 있다. 그는 다양한 모델이나 논리적 가능성 사이에 모계측 교차 사촌혼(the matrilineal cross-cousin marriage)이 부계측 교차 사촌혼(patrilateral cross-cousin marriage)보다 더 안전한 혼인 양식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혼인율은 관계의 체계

20) Claude Levi-Strauss, (1963) 앞의 책, P. 34.

(systems of relationships)에 지나지 않는다. 구조주의자는 관계의 각 체계를 그밖의 체계의 특별한 경우로 다루며 변형 규칙의 수준에 입각해서 보편적 설명을 추구하고 있다.

Levi-Strauss는 이러한 분석 모델을 친족 체계 연구에 뿐만 아니라 신화 연구에도 적용하고 있다. 신화 분석의 초기 작업 역시 신화와 언어는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서 시작되었다. 신화의 내용은 우연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화는 비슷한 기본적인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Levi-Strauss의 입장이다. Levi-Strauss에게 있어서 신화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 것이다.²¹⁾ “신화는 첫째, 그것이 일정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으며, 둘째, 개별적인 신화는 전체의 틀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서만 그 의미를 확보할 수 있고, 셋째, 이야기는 사회적인 맥락 속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넷째, 신화의 근본적인 속성들은 오직 정밀한 분해 작업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다섯째, 신화에 드러나는 정신의 작용은 신화가 나타내는 사회 구조보다 훨씬 흥미로운 것이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모순을 중재하고 인간의 지적인 특히 논리적인 능력을 구사하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 신화는 사회적이라기 보다는 지적인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신의 논리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Levi-Strauss가 창안해 낸 방법은 그들의 기원에는 상관없이 특정 신화의 모든 변형태를 찾아서 그들의 기본 요소들 즉 신화소(mythemes)들을 추출해 낸 다음 각각의 신화와 전체적인 틀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그런데 신화들은 몇 개의 기본적인 무의식의 하부 구조에 의해 설명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화적 현상에 기원을 부여하기 위해서 결합, 재결합 하는 몇 가지 기본적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하부 구조가 설명된다. 주요한 정신 구조 중의 하나는 상보적 이항 대립을 통해 작용하려는 경향이다. 즉, 두 개의 상보적인 극의 부류로 실재를 구분하려는 경향이다.

VI. 문학의 구조 분석

Levi-Strauss는 구조 분석을 사회 현상이나 신화 분석에 한정하지 않고 문학 연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는 Jakobson과 공동으로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인간」(1962)을 통해 Baudelaire의 시 「고양이들」에 대한 분석에서 소위 문학에서의 구조 분석의 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 글의 서론부에서 문학 작품도 자신이 행한 신화 분석의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언어학자는 문학 작품에서 구조를 발견하는 데 이것은 민족학자가 신화를 분석하면서 발견하는 구조와 놀라우리만치 유사하다. 또 민족학자의 경우 신화에 의해 강렬한 미학적 감정을 느껴게 되는데 이는 신화가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화와 시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의 대조는 하나의 구조적 원칙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시와 신화에 대한 유사성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에 논란이 많았지만 적어도 문학 작품

21) Claude Levi-Strauss, (1963) 앞의 책, P. 210.

도 어떤 내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작품 분석을 통해 이러한 보편성의 원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고양이들」이라는 시 분석을 통해 입증하려 했던 것이다.

Todorov²²⁾는 Levi-Strauss의 시도를 체계화하여 시학의 구조주의를 펼치고 있는데, 작품 자체의 독자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가 역사나 사회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영역임을 강조한 Saussure의 입장이나 Levi-Strauss가 신화에 대해서 품었던 생각과 동일하다. Todorov는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심리학적 혹은 정신 분석학적 연구, 사회학적 혹은 인류학적 연구, 철학 혹은 사상사에 속하는 연구 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문학 작품의 자립적인 성격을 부정하고 문학 작품이란 자체의 법칙 외에 존재하는 법칙들, 이를테면 심리라든가 사회 혹은 인간 정신 등에 관한 법칙들이 발현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리학적이거나 사회학적 연구는 자체의 기본적인 관점이 작품에 내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석 작업은 심리나 사회 법칙을 찾아 작품을 해명하고 번역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작품 외적인 어떤 것의 표현이며, 이때의 연구 목적은 시학의 부호를 통해 작품 외적인 어떤 것의 법칙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가 된다. Todorov가 주장하는 문학의 과학적 연구 즉, 구조주의적 연구는 이와 같은 외부적 요소와의 관계를 깨뜨림으로써 시작된다. “시학은 개별적인 작품의 해석과는 반대로 의미를 지정하려 하지 않고 각 작품의 탄생을 주재하는 일반적인 법칙의 인식을 지향한다. 그러나 심리학, 사회학 등과 같은 과학의 연구와는 반대로 그 법칙을 문학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 따라서 시학은 문학에 대한 추상적이며 동시에 내적인 접근인 것이다.”²³⁾ 이와같이 문학 작품 자체의 내적인 구조에의 발견에 관심을 전환함으로써 구조주의 비평은 전통 비평방식과 구분된다. 전통 비평은 ‘외적’이고 ‘구체적’인 비평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Boileau의 독단적 비평에서 비롯하여 19세기 Sainte-Beuve 및 Hypolitte Taine를 거쳐 Lanson에 이르는 문학사적이고 박식에 의존하는 비평을 일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비평은 문학 작품의 문학사적, 문헌학적 비평과 문학적 환경에 의한 작품 평가를 주축으로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문학강단에서 이 방법이 답습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강단 비평(critique universitaire)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신비평은 전통 비평의 문학외적 비평 방식에 반기를 들고 문학 작품의 내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도 취향을 달리하는 여러 갈래의 비평가들이 모두 신비평의 기치 아래 모여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구조의 개념에 입각하여 구조주의 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비평가는 Roland Barthes, Raman Jakobson, Levi-Strauss, Tzvetav Todorov, Gerard Genett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작품을 보다 일반적인 어떤 추상적인 구조의 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은 이러한 구조를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조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학 작품은 현실의 문학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학이며, 그 분석은 구체적인 작품의 장황한 설명이나 요약 내용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문학적 언술(discourse litteraire)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이론, 문학의 여러 가능태의 일람표를 제시하는 이론을 펴내는데 있다.

22) Tzvetan Todorov, 정광수 역, (1985) 구조시학, 서울:문학과 지성사, P. 15.

23) Tzvetan Todorov, (1985) 앞의 책, P. 19.

Barthes²⁴⁾는 「구조주의적 활동」이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다. 구조주의자는 실재의 대상에서 시작하여 이를 분리, 재조립하지만 이 재구성은 원래의 대상을 그대로 복원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대상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대상은 원래의 대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어떤 것, 다시 말해 파악할 수 없던 것을 드러내준다. 그런데 이 재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대상의 기능을 지배하는 여러 기능을 드러내는 일이다. 인류학자 Levi-Strauss가 원시 부족 사회에서 '육망 관계'와 '권위 관계'라는 두 범주를 설정하여 사회 구조, 즉 친족 조직을 분석한 것과 같이 Barthes는 Lacine의 작품에서 유사한 육망 관계를 두 대립적인 사랑의 형태로 세분한다.²⁵⁾ 이러한 이항 대립은 구조주의의 모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Barthes에 있어서는 Lacine의 작품에 대한 진정한 자료가 된다. 그는 "Lacine의 구분은 엄격하게 이원적이고, 가능한 것"라는 점을 밝혀낸다. 이 양분은 가장 광범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독백에서 자아 분열로서도 뚜렷해지나 가장 분명한 곳은 극중 인물 간의 대립에서이다. Barthes는 이러한 인물을 열거하는 대신 "A가 B를 완전히 압도한다"라는 공식을 내세운다. 이 권력 공식은 영구히 계속되는 부자 간의 갈등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또 이 갈등은 신과 피조물 간의 갈등이기도 한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무엇, 즉 "원래부터 존재하며 뒤엎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혈연 관계, 나이, 성 따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성'(anteriorite)에 기인한다. 선행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의 뒤에 생겨나는 것은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아버지는 과거이다." 이와 유사한 투쟁이 두 대립체, 즉 빛과 그림자 간에 일어난다. 이들 상호간에 교환하는 위험, 그리고 결코 해소되지 않을 논쟁이 'Lacine적 어둠'을 자아낸다. 다시 말해 "어둠과 빛이 벌이는 이 거대한 신화적 투쟁, 한편에는 밤, 그림자, 잿더미, 눈물, 잠, 침묵, 물래 맛보는 달콤함, 계속적인 욕기가 다른 편에는 온갖 시끌벅적한 물체들, 즉 무기, 독수리, 권표, 햇불, 군기, 합성, 번쩍이는 의상, 자주빛과 금빛, 불꽃과 피"가 벌이는 투쟁을 말한다. Barthes는 이런 식으로 Lacine적 인간(homo racinianus)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립적 요소를 찾아 문학의 구조를 설명하려는 Barthes의 시도에서 보았듯이 구체적인 문학 분석 방법은 구조인류학에서 보다는 구조언어학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구조주의자는 관계, 즉 문학 텍스트에서 관찰되는 수많은 관계의 얽힘에 관심을 둔다. 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작업은 비평가들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들의 결실을 얻기 위해 언어학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

24) 김 현 편역, (1979) 현대 비평의 혁명에 실린 Barthes의 글, '구조주의적 활동'이라는 논문을 인용하고 있음.

25) D. W. Fokkema & Kunne-Ibsch, 윤지관 역, (1983) 현대문학 이론의 조류, 서울: 학민사, P. 84.

Ⅶ. 결 론

지금까지 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구조의 개념과 구조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알아본 후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배태되어 언어학과 인류학 그리고 문학 연구에 적용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았다. 구조주의적 연구의 공통점은 사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하나의 소재를 사변적으로 다루는 가능성으로서의 구조주의,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된 과학적 연구 방법의 한 가능성으로서의 구조주의 방법은 우선 언어학에서 Saussure나 Jakobson에서 시작되어 민족학과 인류학분야에서 Levi-Strauss의 노력에 의해 세계적인 학문의 사조로 성장할 수 있었다. Levi-Strauss는 사회과학 분야에 언어학적 모델을 도입 함으로써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언어와 문화는 모두 대립적, 상반적, 논리적 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언어는 문화의 다른 여러 측면들을 연구하는 개념적 모델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친족의 기본구조」(1968)에서 친족체계의 분석을 통한 사회구조를 드러내는 작업은 다양한 문화양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보편적 정신 구조를 밝히려는 야심적인 노력으로 이어졌고 그의 신화 연구는 바로 이러한 야심의 결실이었다. Levi-Strauss가 창출해 낸 방법은 기원에는 상관없이 특정 신화의 모든 변형대들을 찾아서 그들의 기본 요소인 신화소(mythemes)를 추출해 낸 다음 각각의 신화와 전체적인 틀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후에 그에 대한 비평은 이 같은 이론이 모두 신화의 한 측면에 대한 관심에 불과하며 부분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해 내고 있다. 분명히 Levi-Strauss의 이론은 신화의 사회적 맥락이나 상징적 성격을 간과하므로 신화에 나타나는 특정한 표현 수단이 선택되게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 연구의 경우 구조주의적 비평가들은 문학 작품으로부터 문학 외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문학 텍스트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려는 노력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구조주의 활동의 대열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작품 속에 미로처럼 연결된 관계망을 살피고 이것을 지배하는 어떤 법칙을 보여줌으로써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구조주의자로서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들 비평가에게도 구조란 가능한 표출을 예비하고 있는 잠재적인 것으로 보며 비록 그것이 실제적인현상들로부터 얻어진다고 해도 언제나 근본 모형, 즉 하나의 심층 구조와 항수(項數)내에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본 모형, 혹은 기본 구조라는 개념은 작품의 본질을 의미한다. 작품의 여러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기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구조주의 비평가들은 언어학에서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 항수 개념에 입각해서 문학 유형을 추출하려고 하는 유형 안출 방식이나 변형의 인식, 이중적 분류를 도구로 하는 연구, 계열체와 통합체의 개념 등은 모두 언어학의 방법에서 얻어 온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주의 활동도 분명한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첫째, 역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즉 비역사성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구조주의에 역사성이 관련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특히 마르크스 주의자와의 논쟁이 격렬했었다. 구조주의가 구조를 확고한 현상의 배후에 있는 법칙으로 이해함으로써 역사적 변환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은 모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로 지적되는 사항은 공허한 보편성에 관한 것이다. 기본구조의 엄청난 추상성은 문화의 속성이나 문학의 질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특수한 것들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과 연결된다. 재구성되어진 기본 형식이 보편화되면 될 수록 명료한 구조는 더욱 잘 드러나게 되는데 이 구조는 점점 내용을 잃고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문학 비평에서는 개별 작품에 들어 있는 특수한 것들은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되면서 더욱 일반화된 구조의 포용력으로 인해 저술가의 노력과 창조된 것 안에 자리잡고 있는 작가의 역할이 경시된다는 점이다

세째로는 그 밖의 사항들로서 이중적 사고를 통한 제약, 가치 중립적 태도와 탈사물화의 문제점 등이다. 우선 이원 분리의 적용은 전통적인 이중 가치에 입각한 사고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의해서 조건지워져 있으며 이중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를 통한 언어 연구의 기술적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조망은 그 자체에 감쇄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립 분류는 문학의 경우, 작품이 지닌 객관적 복잡성에 대한 부적합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음은 가치 중립성인데 다의성의 강조로 가치와 무관한 중립적 관찰자의 태도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결국 가치 판단의 금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탈사물화의 지적인데 특히 문학이나 신화 연구에 주목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과학적 연구를 지향하는 나머지, 구조주의적 방법은 이들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질료적인 사실성"을 말살해 버리기 쉽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점이 지적되고 또 구조주의의 한계가 명백해짐에 따라 구조주의는 바로 그것이 발생한 현장인 서구 사회에서 도외시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조주의의 한계와 결점은 다양한 후기 구조주의자들을 배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서구 지성사의 한 사조로 정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그 자체로 가치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김치수, (1983) 구조주의와 비평 문학, 서울; 흥성사.
- 김 현 번역, (1979) 현대 비평의 혁명, 서울; 흥성사.
- 전규태, (1973) 문학의 구조주의적 접근, 서울; 문학사연구회
- 소두영, (1984) 구조주의, 서울; 민음사.
- Barthes, Roland, (1957) *Mythologies*, (Paris; Points)
- Ducrot, Oswald, (1968) *Le Structuralisme en Linguistique Vol. I*, Paris; Points
- Fokkema, D. W. & Kunne-Ibsch, Elrud, 윤지관역, (1983) 현대문학 이론의 조류, 서울: 학민사.
- Glucksmann, Miriam, (1974) *Structuralist Analysis in Contemporary Social Thought*, London and Boston : Routledge & Kegan Paul.
- Harris, Marvin, (1969) French Structuralism in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 Hawkes, Terence, (1977) *Structuralism and Semiotics*, London : Methuen & Co. Ltd.
- Horton, Rod W. & Edwards Herbert W., (1974)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London : Prentice-Hall.
- Kruzweil, Edith, (1980) *The Age of Structuralism*,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 Leach, Edmund, (1976) *The Sturctural Study of Myth and Totemism*, London : Tavistock Publications Ltd.
- Levi-Strauss, Claude,
(1963) *Structural Anthropology*, Great Britain : Penguin Books.
(1966) *The Savage Mind*,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3) *Tristes Tropiques*, Great Britain : Panguin Books Ltd.
(1973) *Totemism*, Great Britain : Penguin Books.
(1973) *Structural Anthropology Vol. 2*, Great Britain : Penguin Books.
(1978) *Myth and Meaning*,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acksey, Richard & Danato Eugenio, (1972) *The Structuralist Controversy*, London : The Johns Hopkins Press Ltd.
- Maren- Grisebach, M. (장영태 역), (1984) 문학 연구의 방법론, 서울: 흥성사.
- Piaget, Jean, (1973) *Structuralism*,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 Rossi, Ino, (1980) *People in Culture*, New York : J. F. Bergin Publishers Inc.
- Scholes, Robert, (1974) *Structuralism in Literature*, New Haven & London : Yale Univ. Press.
- Sperber, Dan, (1968) *Le Structuralisme en Anthropologie*, Seuil :Points.
- Sturrock, John, (1979) *Structuralism and Since: From Levi-Strauss to Derrida*, London :Oxford Univ. Press.
- Todorov, Tzvetan (정광수 역), (1985) 구조 시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Summary>

Structuralism and Structural Criticism

Ki-wook Le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structuralist's thought by examining the works of several French thinkers commonly associated with structuralism. We examined firs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term, "structure, used" by different theorists and investigate whether its proponents all work with a similar conceptual frame work,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Saussure, Levi-Strauss, and Barthes. And next we looked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n which structuralism grew out.

Definitions of structuralism have gone through many transformations, and structuralist practitioners are no more able to define their discipline than are their observers. Each structuralist has defined his own system of thought. However outsiders have perceived them as a group that shares in the search for hidden universal relations and their rules.

In Saussure, we found that linguistic structuralism goes back directly to him. Saussure revealed that diachronic development is not the only process to be taken notice of in the study of a language, and in fact the history of a word may give a seriously inadequate account of its meaning. In addition to its historical aspect, he indicated that language has systematic aspect: A systematic aspect embodies laws of equilibrium which operate on its elements and which, at any given point in its history, yield a synchronic system.

The implication of Saussure's work on language are seen at their clearest in the work of Levi-Strauss, who has declared Saussure to be one of the two truly formative influences in his intellectual life. Levi-Strauss has studied anthropological phenomena as if they were languages. He has studied them as systems : the systems of kinship, of totemism, of myth. And also he has attended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different units.

In literary criticism we showed that the Russian formalists and structural critics have worked toward discovering the universal principles that govern the literary use of language, from the syntax of fictional construction to the paradigms of poetry. Structuralist activity has found its center. It is also noticed that structuralist activity has found its center in linguistic study and taken much of its impetus from the achievements of Saussure, and Jakobson. Finally in this study we indicated several levels of deformities which the structuralist methodology includes in common.